

사업다각화 통해 새로운 시장 개척

철저한 고객서비스로 신뢰받아



이 경 호

영림목재(주) 대표이사

지난 40여 년간 신용과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파렛트 제작 산업에 일익을 담당해 온 영림목재(주)(대표이사 이경호).

사업 다각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영림목재는 품질, 가격 납기 등의 고객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품질개선 활동과 연구개발로 고객이 신뢰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영림목재는 소재를 원산지에서 직접 수입하여 모든 생산 공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재 인천 남동공단 본사의 5개 창고 중 2곳의 창고를 사용하고 있어 파렛트에 필요한 LVL 및 합판 소재를 약 2,000m³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한곳은 파렛트 제작 공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천 서구 오류동에 파렛트 및 원자재 야적장으로 약 11,550m²와 49,500m²의 당진 물류센터를



▲ 영림목재(주) 당진물류센터



▲ 영림목재(주) 남동공단 본사

보유, 저가의 소재부터 고가의 제품까지 실내 보관하여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있다.

현재 영림은 목재 파レット, LVL 파レット, 와이어메시 컨테이너, 메시컨테이너, 벌크컨테이너 등을 생산하고 있다.

영림의 목재 파レット는 소재를 원산지에서 직접 수입하여 소재 검사에서부터 열처리 건조, 대패 및 가공, 제단 제작, 보관 관리까지 모든 생산 공정을 일괄적으로 하고 있다.

일회용 파レット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수입한 강질목으로 제작한 렌탈 및 구내용 파レット를 고객의 요구에 맞게 생산 가능하다.

LVL 파レット의 경우 영림목재는 이전부터 LVL을 여러 수출용 파レット 및 포장박스에 사용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미가공 포장재의 자국내 반입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에 국내 수출업체에서도 조건에 부합하는 파レット나 포장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림의 LVL은 2차 가공

및 건조제품으로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고 검역 미대상 소재라 수출입 업체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경량형 컨테이너로 자동차 부품 포장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와이어메시 컨테이너는 통기성이 좋아 냉장·냉동용으로 사용되며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형태 변화가 가능하다. 와이어메시 안에 적재되는 제품의 형태, 무게 등 고객이 원하는 사용 용도에 따라 설계하여 밑판의 형태를 변

YOUNG-LIM

경하거나 와이어 두께 및 간격을 조절하여 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현재 일본, 이탈리아,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다.

메시컨테이너는 중량형 CKD 박스로 제품의 특성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사용시에도 다단적재가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철식으로 보관이 편리하여 공간 활용에 이점이 있다. 자동차 부품이나 기타 기계제품을 담을 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수용으로 장기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합판이나 단프라 등이 파손될 경우 교체가 가능하도록 제작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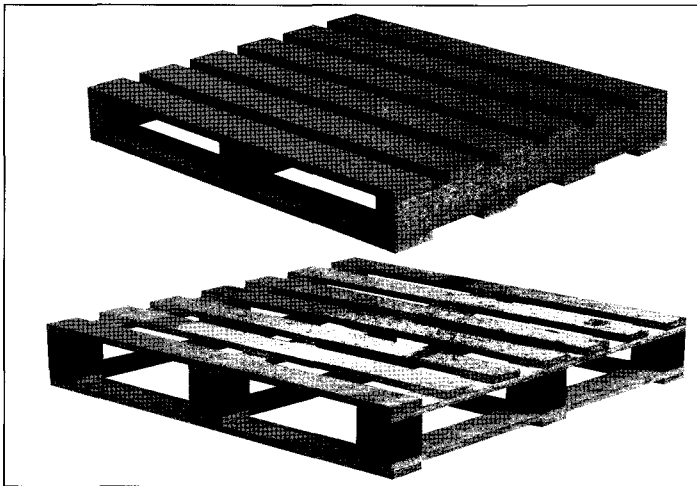
수출용 포장박스 및 제품 보관용 박스 등으로 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고 위해 특별히 제작되는 플라스틱 제품인 벌크컨테이너는 현재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부품에 따라 컨테이너

내부에 다양한 더니지를 적용하여 이동시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사용시 여러 층으로 적재가 가능하며 사용 후에는 접어서 많은 양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물류비 절감을 극대화할 수 있다.

기존 목재 파렛트 포장박스 위주의 영업과 더불어 합판 LVL 등을 판매하여 지난 2004년부터 매년 10억원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영림목재는 지난 2007년도에 약 134%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기존 일반 목재 파렛트 포장박스에서 벗어나 LVL을 접목시켜 제품을 다양화한 것이 적중한데 있다.

또한 작년부터 메시컨테이너, 와이어메시, 벌크컨테이너 등의 신제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한몫 했다.

사실 국내의 목재 파렛트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플라스틱과 철재 등 다른 소



▲ 영림의 목재파렛트(上)와 LVL 파렛트(下)

재 제품의 수요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영림목재는 기존 목재 파렛트는 지속적으로 생산 판매 하면서 다른 소재(플라스틱, 철제)의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

현재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목재 상자 부문에도 지속적인

판매를 할 계획이지만 목재상자와 더불어 플라스틱과 철제 컨테이너에 대한 연구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인 국가 표준 파렛트인 T-11형 플라스틱 파렛트는 개발이 완료되어 판매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영림목재

측은 “물류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국내에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리턴어블 용 접철식 플라스틱 벌크컨테이너와 철제 와이어메쉬, 메쉬컨테이너 역시 개발이 완료되어 판매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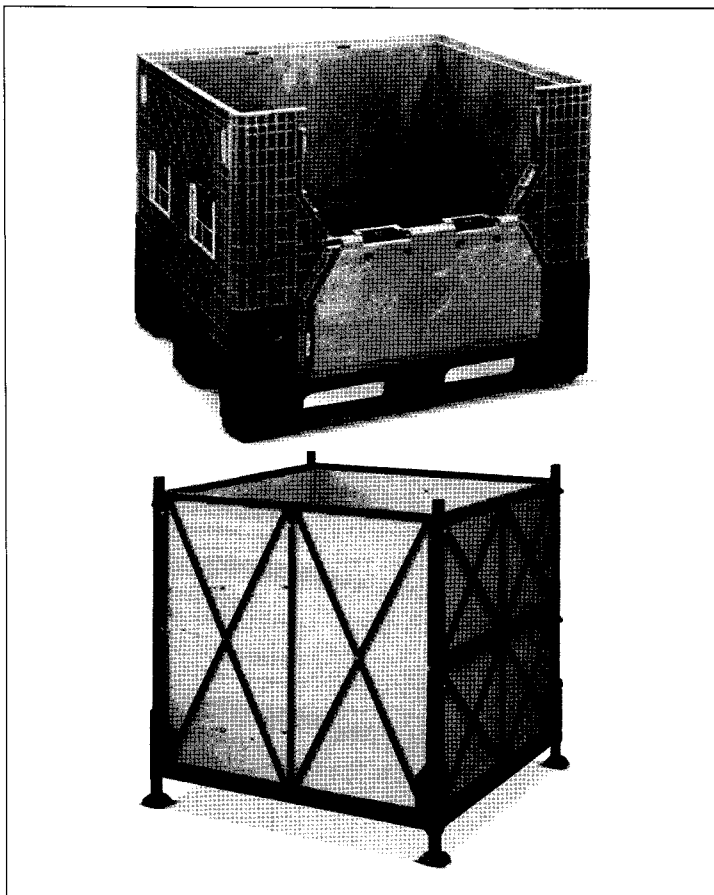
다른 물류 기기들을 계속적으로 개발, 아이템의 다양화를 추구할 계획인 영림목재는 원가 절감을 위해 목재와 LVL, 합판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고품질의 제품을 납품하는 전략으로 고객 만족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영림목재는 철저한 고객 서비스와 사업다각화를 바탕으로 국내 물류산업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품질경영시스템을 기반으로 21세기 일류기업을 지향하고 있는 영림목재.

최고의 품질과 기술로 고객 만족 극대화를 통한 신뢰 받는 환경 친화적인 기업을 추구하고 있는 영림목재의 행보를 기대 해 본다. ☺

이한얼 기자



▲ 벌크컨테이너(上), 메쉬컨테이너(下)